

# 원티드 프론트엔드 챌린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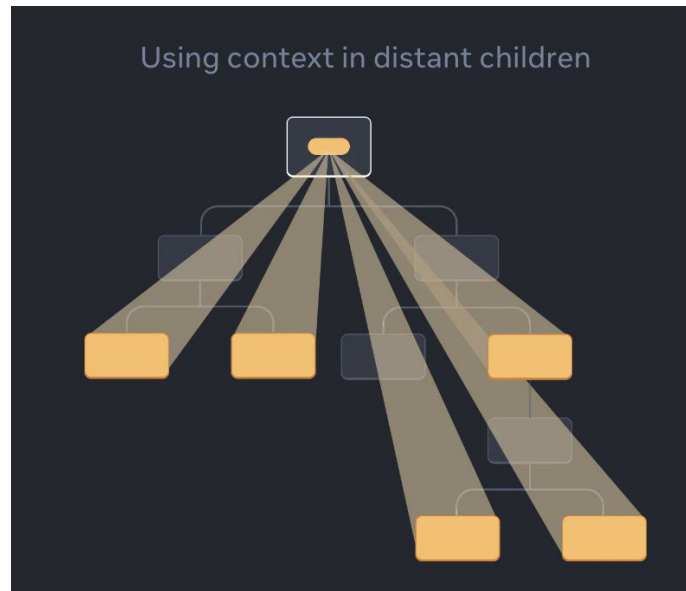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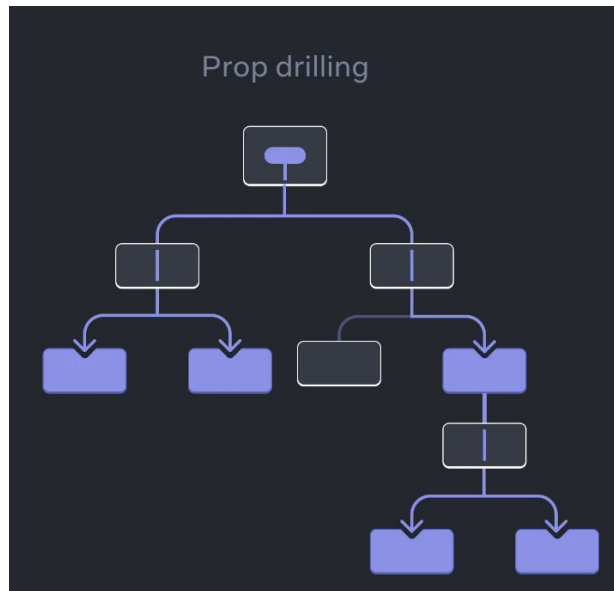
## 8월 2회차

# Recap

1. 지역변수 **vs** 전역변수
2. Context API
3. Recoil
4. React Query

# 지역변수 vs 전역변수

1. 가급적 지역변수 사용을 권장
2. 전역변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



# Context API

1. 리액트 내장 패키지로 추가 라이브러리 불필요
2. 관심사가 여러개라면 숫자에 맞는 **Provider** 선언 필요
3. 불필요한 **rendering** 발생 가능성

# Recoil

1. 리액트와 유사한 **syntax**
2. **atom**이라는 **state**
3. **atom**을 조작한 **selector**
4. 요즘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

# Recoil

1. atom을 공통함수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질문 - 그러면 안됩니다

```
const calculateTotalPrice = (price: number) => {  
  const count = useRecoilValue(countState);  
  return price * count;  
};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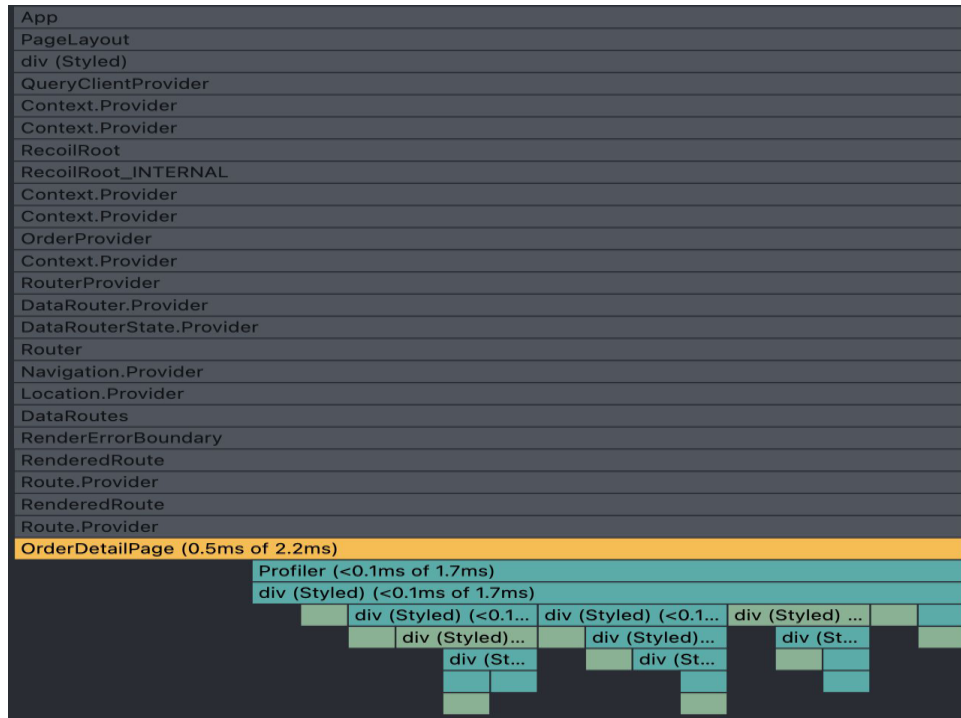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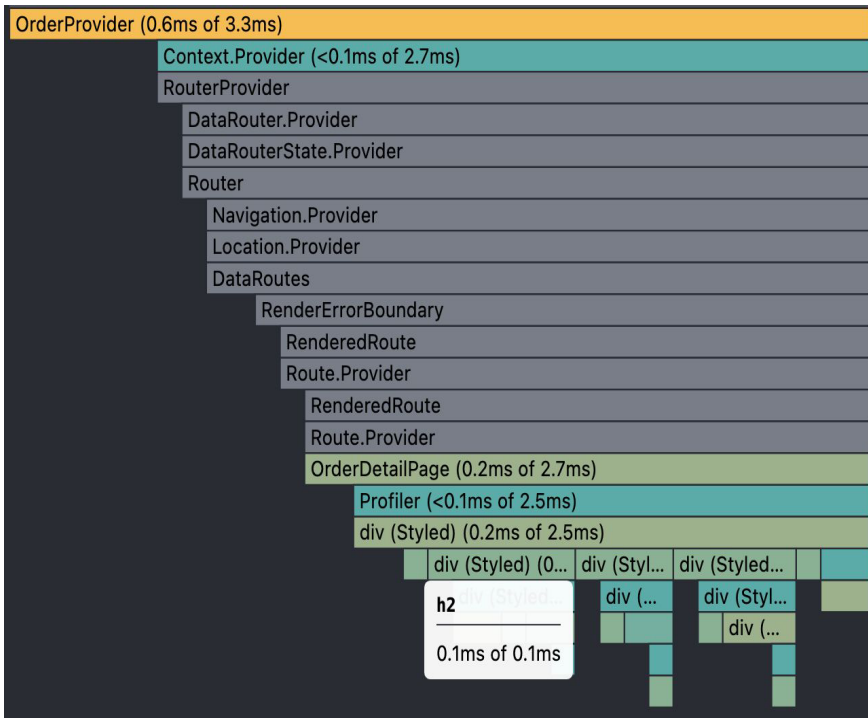
# Recoil

1. atom을 공통함수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질문 - 그러면 안됩니다
  - a. 함수가 Pure Function이 아님
  - b. 같은 input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같은 output을 리턴할 수 없는 구조임

```
let count = 1;

const calculateTotalPrice= (price: number) => {
  return price * count;
}
```

# Context API vs Recoil





# React Query

1. 서버 상태 관리
2. staleTime, cacheTime 사용
3. optimistic update
  - a. 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nN5ng6aoAc&ab\\_channel=Codevolution]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nN5ng6aoAc&ab_channel=Codevolution)
  - b. <https://uncertainty.oopy.io/optimistic-ui-with-react-query>

# Agenda

1. 무엇을 테스트 할 것인가?
  - a. 어디까지 테스트 할 것인가?
  - b. 어떻게 테스트 할 것인가?
2. 유닛테스트
3. 통합테스트
4. E2E 테스트
5. 테스트 자동화
6. 프론트엔드 TDD

# 무엇을 테스트 할 것인가?

## 1. UI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음

- a.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**input**과 버튼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은 무의미
  - i. 기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
- b. 컴포넌트 렌더링 순서도 무의미
  - i. **JSX**는 선언한대로 렌더링 된다
  - ii. 인풋이 버튼 위에 존재하는지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것

## 2. 요구사항의 “사용자 시나리오”에 집중해야 한다

- a.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버튼이 활성화 되는가?
- b. 하지만 위보다 중요한것은
  - i. 로그인이 성공하는가?
  - ii. 로그인이 실패하는가?
- c. “기능”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를 해야한다

# 무엇을 테스트 할 것인가?

1. 로그인 화면에서 버튼 테스트
2. 테스트 시나리오?
  - a. 버튼이 잘 보이는가
  - b. 버튼이 요구조건에 맞게 활성화 되는가
  - c. 활성화된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잘 발생하는가

# 무엇을 테스트 할 것인가?

1. 로그인 화면에서 버튼 테스트
2. 테스트 시나리오?
  - a. 버튼이 잘 보이는가
  - b. 버튼이 요구조건에 맞게 활성화 되는가
  - c. 활성화된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잘 발생하는가
3. 위에 3개 다 아님
  - a. 제대로 된 계정정보로 로그인이 잘 되는가?
  - b. 잘못된 계정정보로 로그인이 실패하는가?
    - i. 로그인 실패 여부가 "에러메세지" 로 확인이 가능하다면
    - ii. 해당 항목은 확인 가능
4.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를 하지 말 것.

# 무엇을 테스트 할 것인가?

1. 다시 로그인으로 돌아가면
2. 로그인이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
  - a. 이벤트 핸들러가 잘 동작하는지 봐야하고
  - b. 결국은 버튼이 잘 그려지는지를 봐야한다.
3. 하지만 난 “로그인 성공” 이라는 간단한 기능에 유닛테스트를 하는 중인데?
  - a. 그런데 로그인 성공을 테스트하려면
    - i. 인풋도 잘 작동하고
    - ii. 버튼도 잘 작동하고
    - iii. HTTP request도 잘 이루어져야함
  - b. 이정도면 통합테스트 아닌가?
    - i. 프론트엔드는 유닛테스트와 통합테스트의 경계가 애매함 (개인적의견)

# 어떻게 테스트 할 것인가?

1. Given - When - Then
2. True 또는 False를 리턴
3. 결과값을 **expectation**과 비교
4. 테스트는 한번에 하나씩만

# 단위테스트

## 1. 코드의 가장 작은 단위를 테스트

- a. 각각의 컴포넌트
- b. 각각의 함수
- c. **Jest**를 많이 사용함

## 2. 로그인으로 예를 들자면

- a.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필드가 존재하는지.
- b.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필드가 적절한 속성(**type**, **name** 등)을 가지고 있는지
- c. 로그인 버튼이 존재하고, 활성 상태인지
- d.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없을 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지
- e. 로그인 함수(예: **handleLogin()**)가 예상대로 동작하는지

## 3. 언급한 것처럼 단위테스트와 통합테스트의 경계는 모호함



# 통합테스트

1. 여러 컴포넌트나 모듈이 함께 작동하는 경우를 테스트
  - a. 컴포넌트간 상호작용을 보는 것
  - b. 단위테스트보다 넓은 범위
2. 로그인으로 예를 들자면
  - a.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, 올바른 요청이 서버로 전송되는지
  - b. 서버에서 응답이 오면 적절하게 UI가 업데이트되는지
  - c. 로그인이 성공한 후에 사용자를 적절한 페이지로 리디렉션하는지

# E2E 테스트

1. 사용자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플로우를 전체적으로 테스트
  - a. 사용자의 실제 흐름을 테스트하는 것
2.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
  - a. 모든 컴포넌트
  - b. 데이터베이스
  - c. 네트워크
  - d. 사용자 인터페이스
3. 로그인 기능을 예로 들면
  - a. 사용자가 실제 환경과 같은 상황에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,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
4. 애자일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함
  - a. 빠른 대응/수정이 불가능함

# 프론트엔드 TDD

1. 완벽한 TDD는 불가능
2. Component UI를 먼저 작성한다면
  - a.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
  - b.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듯
3. 하지만 완벽한 TDD라고 보기는 어려움

# [아하!모먼트] 요즘 관심있는 분야는 어떤것인가요?

## 1.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?

- a. 최신동향 파악
- b. 채용공고 분석

## 2. 기술면접 대비

- a. 프로그래머스
- b. Leetcode
- c. 면접 스테디
- d. 실전 면접 경험